

★ New Portfolios

Social Network

회사명	주식회사 소셜네트워크
투자분야	박물관 운영업
대표이사	박수왕
설립일	2013. 12. 18
투자일	2017. 04. 21
사업분야	AR(체험전시장, 플랫폼, 콘텐츠)
홈페이지	http://nsocialnetwork.com

소셜네트워크는 2010년 설립 이래 'AR매거진(캠퍼스텐)', 'AR패드(바로로 패드)', 'AR플랫폼 스케치팝'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중국 1위 애니메이션사인 알파애니메이션, 신동방교육그룹과도 'AR플랫폼 스케치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트리아이뮤지엄(서울, 부산, 제주, 양평, 싱가포르, 홍콩)과의 합병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6개 글로벌 트리아이뮤지엄에 AR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다수의 해외 대형 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사업적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AR관련 업체에서 실제 사업화 영역까지 이끌어 낸 회사가 매우 드문 현실 속에서 소셜네트워크는 4차산업혁명 명의 핵심인 AR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NO.1 증강현실 기업이다.

소셜네트워크는 '트리아이뮤지엄'과의 합병을 통해 그 동안 개발해 온 AR기술 및 콘텐츠를 본격 사업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확보 하였다.

이에 연내에는 기존 서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추가 3곳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여 글로벌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ORUM THERAPEUTICS

회사명	오름테라퓨틱(주) Orum Therapeutics
투자분야	바이오(혁신신약)
대표이사	이승주
설립일	2016. 08. 17
투자일	2017. 06. 16
사업분야	바이오의약품 세포침투항체를 이용한 항암제개발
홈페이지	http://www.orumrx.com/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용성 교수와 다국적 제약사인 전사노피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인 이승주박사가 의기투합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김 교수의 세포침투항체기술을 이용하여 30년동안 신약개발이 안된 RAS변이를 공격하는 항체신약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A라운드이며 인터베스트, KB인베스트먼트-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공동운용펀드와 함께 총 90억을 투자하였다.

현재 항체 치료제는세포질로 침투하지 못해 세포질 내 질환유발 단백질들을 직접 표적할 수 없다. 동사의 세포침투항체기술은 기존의 항체신약이 세포표면 또는 외부의 타겟에만 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내에 도달하지만 표적항원의 일부만 결합하는 합성신약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천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인간 종양의 약 30%에 발견되며, 체장암 95%, 대장암 52%에 발견되는 RAS유전자돌연변이는 직접 표적하는 약물이 개발된 것이 없이 불가능한 난공불락표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사는 세포 침투항체기술을 활용하여 Ras타겟 항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도 몇 개의 회사만 연구개발하고 있는 First-in-class 항암 항체약물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Find Plasma solutions at Plasmapp

회사명	(주)플라즈맵
투자분야	바이오, 2차전지
대표이사	임유봉
설립일	2015. 03. 31
투자일	2017. 07. 07
사업분야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2차 전지용 산업용 플라즈마 장비
홈페이지	www.plasmapp.co.kr

플라즈맵은 2014년 8월 KAIST 연구실 창업 후 2015년 3월 법인 전환을 통해 플라즈마 혁신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업분야로는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2차전지 산업용 플라즈마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가정용 플라즈마 소독기, 피부 치료 플라즈마 밴드 및 농식품 분야에 까지 사업영역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LB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등 국내 투자자로부터 총 121억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생산 시설 확보와 적극적 판매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과 대리점 확보를 완료하고 해외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컨택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적인 성과는 태국과 이란에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혁신적인 플라즈마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플라즈맵을 위해 전직원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

★ LB 일본 비전트립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LB인베스트먼트 식구들이 교토와 오사카를 거치는 일정으로 일본 행 비전트립을 떠났다.

이른 아침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오사카 관서 국제공항으로 일본 입국 후, 또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2시간 만에 교토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교토의 지역 특산물인 두부정식으로 첫 식사를 마친 후, 토롯고 열차를 타고 아라시야마에 도착하여 대나무 숲을 산책하는 여유를 만끽하였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거닐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교토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온거리를 구경하느라 모두들 눈과 귀가 바빴다. 그 동안 LB의 성장을 위해 함께 달려온 전 직원들은 교토의 고풍스러운 매력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몸소 느끼며 가이세키 정식으로 첫날의 저녁식사를 마쳤다. 식사 동안 앞으로 LB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단합의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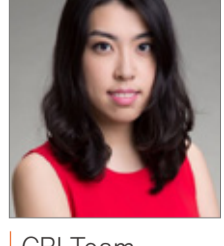
둘째 날의 일정은 교토의 대표 관광지인 금각사로 시작하였다. 금박을 입힌 화려한 모습의 금각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누각과 푸른 나무들이 연두위로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이른 더위가 찾아 온 교토에서 아침부터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도 LB식구들은 활기를 잃지 않고 가이드 설명에 집중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조성도 방문하였는데 두 개의 개별 궁전이 있는 두 개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크고 정교한 단지였다. 난자의 침입을 쉽게 알 수 있게 바닥 위를 걸으며 중달새의 울음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마루를 직접 걸으며 그 시대의 방의 모습과 구조를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청수사에 도착하여 더위를 가시게 해줄 메밀요리로 점심식사 후 절 내부를 둘러보았다. 교토에서는 유독 색색의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초의 수도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운치와 멋이 가득한 거리 구경을 마지막으로 LB 식구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며 다음 행선지인 오사카로 향하였다.

비전트립 마지막 날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로 인해 오사카성 방문 후, 오사카박물관에서 내부 관람을 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점심식사는 초밥정식으로 마무리한 후 오후에는 각자 도톤보리를 관광하는 자유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전트립은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효율적 동선을 바탕으로 여러 사찰과 성 등 필수 방문코스를 방문하여 구석구석 둘러보았으며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아시아로 확대해 가는 LB의 비전을 전직원이 함께 토론했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LB인베스트먼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LB의 'Look Beyond'를 실현하여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LB의 활약이 기대된다.



★ New face



CBI Team
Elaine Pang

My name is Yunxing(Elaine) Pang. I graduated from Pace University in New York with master degree in Finance, and also I hold bachelor degree in Accounting from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I joined investment banking department of Southwest Securities in Shanghai in 2010, which is a listed company and ranked top 3 in M&A business sector in China. I mainly focused on M&A and IPO projects. In 2014, I partnered with some industry experts and founded a startup Internet Company called Hilocal, aiming to directly connecting oversea tour provider and Chinese travelers without agent charge. From 2015 to 2017, I worked for Fudan-Softbank Venture Capital as Executive Director. I focused on Education and TMT sector, and was responsible for investment, fund raising and fund management.

I recently join LB investment China team in Shanghai. My main responsibilities are fundraising and also investment. I am willing to contribute my experience and knowledge to LB investment.